2019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9. 6. 24. ~ 7. 14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대학 위치는 캘리포니아 레딩에 있습니다. 학교 규모는 작지 않지만 시골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불편합니다. 제가 주로 이용했던 장소는 기숙사, 웹 디자인 수업 강의실, 카페테리아, 그리고 커먼스 룸입니다. 대체로 학교 시설은 좋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기숙사 샤워실과 화장실은 공용이었고 샤워 실이 2개 밖에 없었기에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했습니다. 학교의 분위기는 방학이라 학생들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와 함께 프로그램을 듣던 학생들은 정말 착했고, 그 친구들과 함께 화목했던 분위기 속에서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수업은 코딩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업 방법은 한 강의실에 컴퓨터로 수업합니다. 강사님이 친절하고 쉽게 가르쳐주었습니다. 과제는 없어 좋았습니다. 수업 준비는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다면 다음 진도를 따라 나가는 데 충분합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3주 동안 오전은 수업을 진행하고 한 시간 점심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항상 필드트립을 나가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 볼 수 있고 여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비가 거의 오지 않고 낮에는 햇빛이 뜨겁습니다. 밖에서 하는 활동이 많기에 선크림을 꼭 가지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는 날씨가 많이 쌀쌀해 추울 수 있으니 셔츠 챙겨가면 좋습니다. 또한, 수업하는 강의실도 춥기 때문에 꼭 챙겨서 가는 걸 추천합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위험한 일은 절대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 자체가 시골에 위치해 있어 차 있는 친구들이 없으면 나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나가게 된다면 필드트립으로 수업이 끝나고 오후에 다같이 나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숙소	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기숙사 시설은 2층으로 된 건물입니다. 방은 2인 1실로 사용하는데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입니다. 샤워실도 2개밖에 없어 조금 불편했습니다. 도착하면 외국인 친구와 룸메가 되기 때문에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물 가져가는 것도 좋아요
식사	학교식당 ( ) 외부식당 ( ) 기타 (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저는 주로 학교식당을 이용했는데 음식이 생각보다 너무 짜서 사 먹기도 했습니다. 외부식당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한정적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음식을 사서 커먼스 룸에서 같이 해먹었습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교통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버나 버스를 타야 하는데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필드트립으로 학교에서 단체로 버스로 이동하고 방과 후나 주말에는 현지 친구들 차를 이용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600,000 정도	출국 전 사전 납부
보험료	27,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달러	600,000원	
카드	250,000원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선크림 챙겨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덥기도 하지만 저녁에는 쌀쌀해 긴 옷을 꼭 챙겨가는 걸 추천합니다. 필드 트립을 3주 내내 다니기 때문에 편한 신발은 필수입니다. 힐이나 워커 절대 신을 일 없으니 가져가지 않는 게 좋아요.

학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시골에 있어 놀랐습니다. 차가 없으면 절대 나갈 수 없는 구조라 나가려면 우버를 불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버는 거의 이용하지 않았고 현지 친구들 차를 이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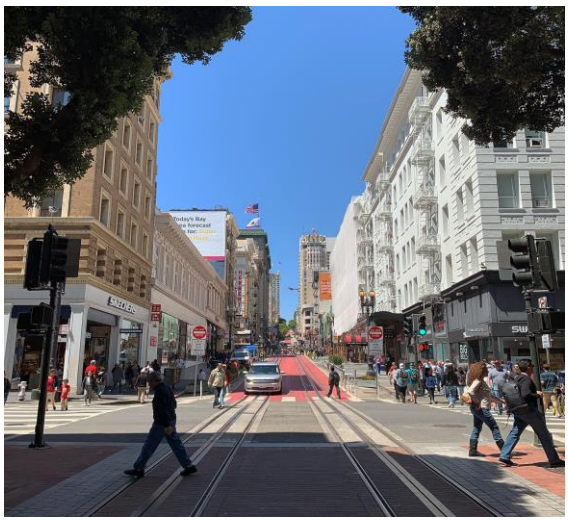
비상약을 준비해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프면 병원도 멀고 병원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상약을 준비해 가는 게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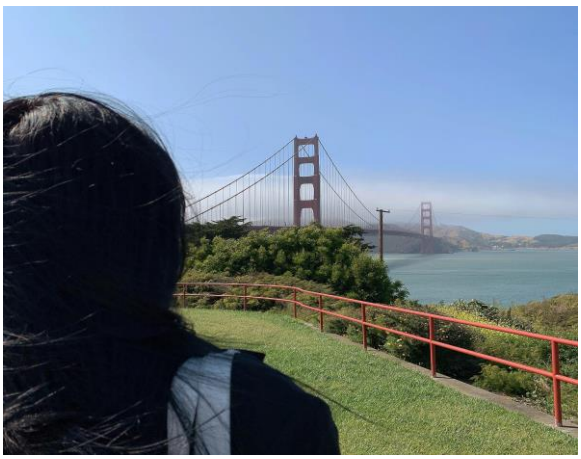
현지 음식이 짜서 안 맞을 수 있으니 밥이나 라면 등 먹고 싶은 것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문화를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며 경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3주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움이 남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 넓힐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현지 음식도 짜고 입에 맞지 않아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기에 친구들과 라면도 사 먹고 같이 음식을 해 먹었는데 그럼 경험 하나하나가 모두 행복했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경험도, 추억도 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시골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많이 불편했고 차가 없으면 나갈 수 없어 현지 친구들에게 부탁해야 해서 미안했는데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고 3주 동안 함께 해준 그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말에는 나가서 놀자고 권유하며 챙겨주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저에겐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샌프란시스코 거리 (유니온스퀘어)		샌프란시스코 케이블카

		
단체사진		금문교
Turtle Bay		Shasta Dam
Sacramento		Fireworks show